고하 송진우 탄신 135주년과 서거 80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학술대회

“송진우의 민족운동과 자유민주건국을 위한 활동” 토론문

이 명 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받는 동안 한국민은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사상 유례없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관내, 러시아 연해주와 하와이·북미·멕시코 등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략과 방법으로 간단없이 전개되었다.

이에 일제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민족 내부로 침투하여 분열과 분화를 일으켜 한국민을 영구히 지배코자 하였다. 일제의 엄혹한 식민통치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세력들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연통을 시도하면서 각기 처한 정치 환경과 한계 안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력양성의 노력과 항일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일제는 망국민이 된 미개한 조선인을 문명국 일본국의 국민으로 포용했다고 떠들었지만 차별과 가난 속에서도 일본 문화로의 동화를 거부하고 조선의 문화전통을 계승, 보전하며 세대를 이어가며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리고 독립을 달성한 후에 한민족 모두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여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오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에 어느 정도 다가갔지만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통일된 민족 국가의 수립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경제 및 문화 선진국이 되는 비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조선총독부도 감히 성공하지 못했던 민족분열이 자기 복제까지 거듭해 심각한 역사까지 왜곡하는 작금의 사태를 애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독립운동사연구와 함께 국내외로 흩어져 사라져가는 독립운동 자료들을 찾고 이들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자료들을 민족의 유산으로 영구히 보존하여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원들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간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저급한 ‘정치’가 ‘문화’를 지배하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지 않을 수 없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는 다양한 시각으로 관점을 넓혀 건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올바른 해석과 방법론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진영의 논리로써 편가름할 수 없으며 폄하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사는 후대가 성찰할만한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박한 역사 인식과 역사의식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 더 이상 자랑스런 독립운동사를 모욕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토론에 앞서 너무 서론이 너무 길어 송구한 마음이다.

Ⅱ

본 학술대회는 독립운동가 고하 선생의 3·1운동 참여 과정과 동아일보를 통한 문화투쟁, 그리고 해방 직후의 사망하기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여정을 잘 보여주었다. 고하 선생은 민족주의 우파로만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세세한 질문은 각 주제별로 지정된 토론자에게 일임하고 본 토론자는 논란

이 될만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나는 점들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유용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1) 제1주제 <고하 송진우의 항일민족독립운동 -3·1운동을 중심으로->
3·1운동 연구는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에 집중하느라 3·1운동이 처음 시작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귀국한 송계백으로부터 2·8독립선언을 전달받고 3·1운동을 기획하였다.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등 종교계 대표 33인의 민족대표를 참여시켜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한 점의 정보 누설도 없이 3·1독립선언의 계획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 그 역사 뒤에는 고하 선생이 있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조선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던 일본 유학생들은 차별을 일찍이 경험했기에 우리 겨레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한다면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고 있듯이 절대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본 발표내용이 앞으로 3·1운동의 배경과 고하 선생 인물연구에 한층 내용을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제2주제 <일제 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과 고하 송진우>
이 발표는 1920년대·1930년대 동아일보사 사장으로 재직 중 고하 선생의 문화 운동과 그 문화투쟁이 독립운동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잘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식적 연구가 역사학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치밀한 역사적 설명이나 근거 없이 부르주아 상층계급, 민족주의 우파는 타협적 자치운동 및 개량주의운동을 전개하고 실력양성운동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방해하고 결국 친일파 코스를 가게 되었다는 도식 프레임이 충분한 인물연구와 분석 없이 이론화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학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1운동 이후 한국에 부임한 사이토 조선총독은 조선에서 문화통치를 선언하고 의회설립(조선지방의회라는 자치와는 관련없는 의결권도 없는 자문기구를 출범시킴)과 참정권 부여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조선인을 회유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자 한 목적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친일파를 육성하여 다시는 3·1운동과 같은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을 영구히 일본에 종속, 동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조 운동이 일어나 일본에서는 대정 데모크라시운동이 일어났으며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는 등 세계정세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세계열강의 식민지, 이집트와 인도, 아일랜드 등지에서 일어난 자치운동은 식민지 종속과 동화주의로부터 벗어나 독립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주의 운동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기만적이지만 '문화통치' 시대를 이용해 일어난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이 조선인 본위, 조선인 중심의 교육과 경제구조를 갖추려는 일종의 자유주의 자치운동이었다. 경제와 교육체제가 일본제국주의 식민체제의 종속에 저항하며 한편 계급투쟁에 몰두, 민족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를 거부하여 경제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 운동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고하 선생과 같은 엘리트들은 1923년 1월, 한국민의 민족운동을 총지휘할 유력한 통일 민족운동 단체를 결성하고자 일본에 대해 자치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독립항쟁을 벌이고 있는 독립운동계에 자치운동은 절대 독립을 부인하는 타협주의로 인식되었기에 그 모임은 민족주의, 공산주의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로는 자치론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그 어디에서도 자치운동의 흔적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자치운동은 사실 실체가 없다.

고하 선생은 친일조직인 각파유지연맹을 비판하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고 1927년 기회주의를 일체 거부하는 비타협운동을 표방한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활동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아일보를 통해 고하 선생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과 동화주의에 강력히 저항하며 문화투쟁을 통해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나섰다. 그것은 민족혁명과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만이 조선의 민족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이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표문에 고하 선생을 자치운동자로 규정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그리고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실제 자치운동을 추진했는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11페이지의 '한일합방' 표현은 존재하지 않은 역사 용어임을 지적한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倂合)하여 식민지로 삼고 종속시켰다. '한일합방' 혹은 '일한합방'이라는 표현은 흑룡회와 일진회가 남발한 기만적 용어이며 그 실상은 '국민국가' 일본이 조선인은 식민지 종속민으로 삼아 식민지배를 하였다.

(3) 제3주제 <해방 직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의 치안유지 협력을 거부한 고하 선생은 미군정에 협력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하여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국민국가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기로 하였다. 1945년 9월 16일 결성된 한국민주당은 보수파와 사회주의 우파 등 다양한 정치세력을 망라한 연합정당임을 밝히고 고하 선생을 중도좌우연합의 우파 정당이라 규정하였다. 고하 선생은 해방정국에서도 그같은 행적 사실은 이제까지의 편견과 선입관을 바꿔주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본 발표는 원 사료를 인용하고 있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해방 후 공식적으로 밝힌 정견을 통해 고하 선생의 정치 성향을 '자유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상과 실제, 특징과 비교했을 때 적합한지는 의문으로 남아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